

# 저작권법 개정과 문화

최일남

소설가·동아일보 논설위원

10여년 전 일이었다. 창작집 한 권을 냈는데, 再版까지 출판하고는 주저앉고 말았다. 더 이상 책이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가보다 여기고 있었다. 작가로서는 창작집이 나온 것 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시절이었으며, 출판사 측에서도 크게 히트칠 걸 기대할만한 세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원래 소설 창작집이란 건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게 관례였으므로, 작자는 재판이라도 나간 것을 고마워해야 할 처지였다. 자기 책을 내 준 출판사가 손해를 본다면 미안하기 짝이 없었던 까닭에, 재판을 찍어 조판비라도 건졌다면 다행이다 싶었다.

그리고 1년 남짓 지났을까. 시골서 소설 공부하는 후배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해가던 그는 오래 전에 나온 내 창작집이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걸 발견했노라고 알려주었다. 자기네 고향의 책방에 나와있는 그 책은 표지 디자인도 바뀌었더라고도 덧붙였다. 소설집등에 관심이 많은 그는 내 창작집을 이미 갖고있는 터여서, 두 창작집의 발행처가 다른 것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셈이다. 세칭 인기 작가도 아닌 내 책이 덩핑시장으로 굴러떨어졌을리도 없을텐데 하고 의아스런 표정을 드러내자, 그는 그 사실을 몰랐느냐고 물었다. 물론 나로서는 금시초문이었다.

내 부탁을 받은 후배는 고향으로 내려가자 곧 문계의 창작집을 사서 부쳐왔으며, 나는 판권난에 적힌 전화번호를 무수히 돌렸다. 그런 허술한 출판사가 대강 그런 것처럼, 서울에 주소 둔 그 출판사도 명목 뿐이지 전화를 제대로 받지도 않았다. 발행인을 대라면 노상 출타중이고, 사무실 위치를 물어도 우물쭈물 하기가 일쑤였다. 하야간 출판사 주소와 발행인의 이름은 겨우 나와 있겠다, 그걸 기초로 고소라도 해야겠다고 버르는 판인데, 하루는 저 쪽에서 만나자는 전갈이 왔다. 먼저 창작집을 냈던 출판사는 없어졌고, 판권과 지형을 사간 사람은 그걸 다시 딴 사람에게 되넘긴 형태여서 문제가 복잡했다. 이리 저리 다리를 놓다 보니 마지막 발행자와 마침내 접선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방에서 만난 그 출판사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는 꼴이었다. 자기는 다만 돈 주고 출판권을 샀을 따름이며, 잘 팔리는 서적이라 전해 듣고 책을 찍었으나, 전혀 움직이지를 않으니, '선생께서' 좀 판매를 도와줄 수 없겠느냐며 반격자세를 취했다. 적반하장이랄까, 내 책이 이렇게 구박 당하고 푸대접 받는가를 생각하자, 부아가 치밀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괜히 부끄럽기도 하였다.

7월부터 새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문화계는 썩 긴장해 있는 것 같다. 그럴법도 한 것이, 아직도 기반이 허약한 출판계를 비롯, 문화를 전파하고 촉매 구실을 하는 여러 개인이나 조직은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의무를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정이나 절차도 그렇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내면 냈지, 이득 될 부분은 적다고 보아 그럴 터이다. 특히 외국 저작권을 얻어 내 이를 보급하자면 댓가가 엄청난 것도 사실이다. 外書を 복제 출판한 곳에서는 10년전까지 소급해서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등, 잘못된 판매 협상 탓에 치러야 할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방송은 효과음악으로 사용하는 외국 곡에도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는등 골치 아픈 일이 많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겪어야 할, 그리고 통과해야 할 문이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 또 매사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잃는 쪽이 있으면 얻는 쪽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출판 저작권의 경우 「사후 30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도 그렇다. 출판사의 부담은 독자에게 미치고, 그것은 다시 원작자에게 미치는 등의 순환논리를 거쳐 안그래도 좁은 출판 문화 시장에 압박을 줄 수도 있겠으나, 그래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언제까지나 문화의 선진 추세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은가. 따라서 중요한 것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원칙을 앞세우면서 질 좋은 문화 창조를 지향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문화의 성질이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 가름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는 「보호 받지 못했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서로 협력할 때이다.

초점 2 교보문고 사태 어디까지 왔나  
4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개설

독서의 현장 8 독서와 삶을 함께 나누는 Y독서클럽 「글벗」

서재 24 초대 국립중앙박물관장 金載元박사의 서재

종합취재 10 뜨거운 여름, 중학교과서 집필 준비

인터뷰 18 바위에 새겨진 先史의 비밀 밝히는 黃龍潭교수

지금 번역중 5 와인담의 「동화 쓰는 법」, 李相琴 교수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鄭允炯 교수

지금 독서중 6 에렌즈워의 「예술의 숨은 질서」, 李光美 교수  
全哲煥의 「사회정의와 경제의 논리」, 朴元淳 변호사

지금 집필중 7 「實錄 智異山」 집필하는 朴泰海씨

지금 제작중 랜드의 건축소설 「마천루」, 도서출판 廣場

類書소식 14 한국미술사연구서 많이 나온다

출판화제 16 「책방 53년」 기록한 「通文館」 주인  
17 무궁화의 모든 것 다룬 이색 기획출판

세계의 출판 28 프랑스革命 2백주년 관련서적 출간할기  
베스트셀러 大河小說도 등장

장 도르송의 「상 미니아토에서의 행복」

피에르 미켈의 「벨포르의 암사자」

로널드 헤이먼의 「사르트르 전기」

TV독서프로의 황제 베르나르 피보

30 프랑스 지역 베스트셀러 목록

저작권 통신 31 인용·전재는 저작물 자유이용의 편법이 될 수 없다

서평 20 「관광과 문화」—孫大鉉  
「韓國青銅器文化研究」—姜仁求

21 「붉은 단추」—成民燁  
「韓國의 農議」—尹重剛

22 「영적 체험—희심에서 임종까지」—박형용  
「겨울골짜기」—金柱演

23 「인형극의 역사」—韓相喆  
「文學教育論」—정현기

32 신간안내

45 신간목록

42 어린이책 들춰보기

40 출판계움직임

41 읽기자료가 나온 모임

44 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

44 우리책방 단골손님

48 독서피플